

사료를 통해 본 수·고구려 전쟁과 지명 연구

A Study on the Sui-Goguryeo Wars and the Identification of Place-Names through Historical Sources

남익현*

국문요약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한 이유는 고구려가 만주 지역을 장악하며 중국 중심 질서에 협조하지 않고 요서(遼西) 일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거란·말갈과 연대해 세력을 확장했고, 주변국의 조공품을 가로채거나 교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수의 통일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에 수나라는 113만여 명, 후방 지원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이 넘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군대를 동원해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전쟁의 주된 무대는 요서와 요동이었다. 이 글은 이러한 정치·군사적 배경 속에서 수·고구려 전쟁의 전개를 다시 살피고, 특히 전쟁이 벌어진 ‘공간’을 둘러싼 역사지리적 전제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전쟁의 주요 지명을 대응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오류를 범해 왔다. 통설에서는 요수(遼水)를 요하(遼河), 압록수(鴨綠水)를 압록강(鴨綠江), 살수(薩水)를 청천강(淸川江)으로, 평양성을 북한의 평양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사료 분석 결과 고구려 시대의 요수는 대릉하(大陵河), 압록수는 오늘날의 요하(遼河), 살수는 혼하(渾河)로 추정되며, 평양성은 요녕성 요양(遼陽)으로 확인된다. 전쟁의 핵심 무대가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본고는 수·고구려 전쟁에 등장하는 강 이름과 평양성 위치를 포함한 핵심 지명들을 치밀한 사료 고증을 통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핵심어 수나라, 당나라, 요서, 요수, 압록강, 살수, 평양성, 당은포구

- 차례**
1. 서론
 2. 수 양제(煬帝)의 고구려 침공 배경
 3. 수나라 군대의 요서(遼西) 진출과 요수(遼水)의 위치
 4. 수나라 군사 집결지, 압록수(鴨綠水)와 살수대첩(薩水大捷)
 5. 『신당서』와 『주해도편(籌海圖編)』을 통해 본 압록강 당은포구
 6. 결론

1. 서론

수나라는 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위해 대대적인 전쟁을 시도하였다. 수나라는 양제(煬帝) 시기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강행하였다. 대업(大業) 8년(612, 고구려 영양왕 23) 정월, 1,133,800명에 달하는 군대를 북경 부근 탁군(涿郡)에 집결시켜 고구려 정벌을 준비하였다. 여기에 후방 군수와 식량 지원 부대를 합치면,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은 최소 3백만 이상의 인력이 동원된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이었다.

수나라가 고구려 공격을 결심하기 이전, 당시 고구려 는 돌궐의 계민가한(啓民可汗) 등과 교류하고 있었다. 대업 3년(607) 가을, 수양제는 북쪽 유림(榆林, 내몽고 자치구 托克

托縣)으로 행차하여 계민가환을 방문하였다. 마침 그 곳에서 고구려의 사신이 돌궐과 교섭하고 있었다. 이로써 고구려와 돌궐의 공식적 접촉을 수나라가 알게 되었다. 수양제에게 이것은 ‘사통(私通)’이었다. 수양제는 사신에게 고구려의 영양왕이 내년엔 탁군에 와서 조현(朝見)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수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고구려의 태도는 고구려 정벌을 촉진하는 명분이 되었다. 고구려의 강경 자세와 북방에서의 높은 위상은 수나라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고, 수나라는 이러한 고구려가 있는 한 진정한 통일제국이라고 할 수 없었다.

수나라가 탁군을 출발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 행군하는 노정에는 세 개의 중요한 강이 나온다. 평양성으로 진군하기 위해 요서 지방에서 만나는 첫 번째 강, 요수(遼水), 요수를 건너 동서 2백여 리, 남북 1천여 리에 걸쳐있는 요택을 지나면 만나는 두 번째 강 압록수(鴨綠水), 압록수를 지나 동쪽 평양성으로 가다 보면 만나는 강이 살수(薩水)이다. 이 세 개의 강을 고구려의 주요 방어선으로 본다면, 제일 서쪽의 요수가 제1 방어선, 압록수가 제2 방어선, 살수가 제3 방어선이 된다. 요택은 강은 아니지만 진흙 늪지대로 요수와 압록수 사이의 중요한 방어선이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과 관련하여 현재 중국과 한국의 전쟁에 등장하는 지명 위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통설은 다음과 같다. 고구려 시대의 요수는 현재의 요하로, 압록수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으로, 살수는 청천강으로, 장수왕의 평양성은 북한 평양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이론에 기초해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그리고 수나라 이후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상황을 추적해 보면 사료와 충돌하거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지리적 특징과 위치와 관련하여 중국 측의 많은 사료들이 있는데 이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통설과는 모순된다. 이처럼 지명의 위치가 모순을 범한 이유는 당시의 전쟁 기록을 종합하여 치밀하게 분

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명의 제한상 지명의 위치를 고증할 수 있는 사료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요수는 요서지방에 있어야 하며, 상류는 백랑수가 되어야 한다. 두우의 『통전』에 기록된 고구려의 압록수는 강폭이 당척으로 300보, 즉 평균 약 580미터 정도가 되어야 하고, 부두가 많으며 그 부두는 큰 배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큰 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고구려의 압록수가 거대한 배들이 상하로 왕래하며 무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번성한 강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구당서』 설만철전에서 보듯이 ‘압록수 입구로 들어가서(入鴨綠水)’ 평양성으로 향하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압록수의 물길은 평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희는 압록강이 요동과 요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발해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또한 압록강이 황하 장강과 더불어 천하 3대 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통전』에 따르면, 고구려의 압록수는 고구려 평양성을 지키는 천참, 곧 천혜의 요새이자 가장 중요한 ‘중지(中地)’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강은 요하(遼河)밖에 없다. 또한 『대명일통지』 고적조에 따르면 평양성은 요양이며 살수는 장수왕의 평양성 곧 요양 서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평양성을 현재의 평양으로 고정하면 살수는 바닷가에 있어야 한다. 이들 기록과는 맞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통설들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위의 기록들이 맞다면 평양성, 압록수, 살수, 요수의 위치를 달리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록과 수나라의 전투 상황 사료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요수, 압록수, 살수의 위치를 재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2. 수 양제(煬帝)의 고구려 침공 배경

수나라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책은 『수서(隋

書』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를 침공한 수양제의 기록인 『隋書』 양제기를 분석해 보면,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한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隋書』 양제기: 대업 8년(612) 봄 정월 신사(辛巳). 탁군(涿郡)에 대군을 집결시키고 …임오(壬午) 일에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 나의 수(隋) 나라는 신령한 천명을 받아 건국 되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부름을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 지금 고구려는 몽매하고 미친한 무리로 숭고한 천자의 통치하에 모이지 않고 발해(渤海)와 갈석(碣石)의 사이에서 요동과 예맥의 땅을 거둬 잠식하고 있기에 비록 다시 한(漢) 나라나 위(魏)나라의 시대로 돌아가더라도 한위(漢魏) 사람들 역시 그 소굴을 주륙(誅戮)할 것이다. …지금 저들을 보면 중국의 땅을 갈라 오랑캐 지역으로 만든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 악업이 가득 쌓였다. 하늘의 도는 음란함이 지나치면 벌을 내리는데 고구려는 기강을 어지럽히고 덕을 파괴하니 망할 정조가 아닌가! 그래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고구려는) 하루가 멀다하고 간교한 마음을 숨기고 있다. 왕이 황제에게 정무를 보고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거늘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보고하는 일이나 조정을 찾아뵙는 예를 다하지 않으면서, 망령되어 반란을 일으켜 황제의 존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도를 넘어 변경의 봉화와 척후를 매우 피곤하게 하고 있다. 변경을 군사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의 생업도 폐쇄시키고 있다. 지난날 겉으로만 정벌하는 척하였더니 황제의 권능을 우습게 보고 있다. …거란의 무리와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였으며, 말갈과 함께 요서를 침탈하였다. 또 변방의 작은 나라들은 모두 표(表)를 올려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있으며, 바다 건너 먼 곳에 있는 나라들도 정월 초하루가 되면 문안을 아뢰고 있는데 (고구려)가 조공으로 바치는 보물들을 빼앗고 왕래하는 길을 끊어 버려 참으로 화근이 되고 있다. 칙명을 받은 사신이 수레를 타고 해동(海東)에 나가 정절(旌節, 부절)을 보여주며 순차적으로 변국(藩國)의 국경을 지나

고자 하였지만, 길을 막고 통과시키지 않아 사람들이 임금을 섬기려는 마음을 끊었으니 이 어찌 신하된 사람의 예의라 할 수 있는가!¹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수양제가 왜 고구려를 침공하려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① 수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음에도 고구려는 천자의 통치 아래에 모이지 않고 발해(渤海)와 갈석(碣石) 사이에서 요동과 예맥의 땅을 거둬 잠식하고 있음, ② 고구려는 기강, 곧 중국 중심의 질서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어지럽히고 덕을 파괴함, ③ 왕이 황제를 만나 알현하고 보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직접 찾아오는 예를 다하지 않고 있음, ④ 망령되어 반란을 일으키고 변경의 봉화와 척후를 매우 피곤하게 함, ⑤ 변경을 지키는 군사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의 생업을 폐쇄하게 함, ⑥ 거란의 무리와 함께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고 말갈과 함께 요서를 침입함, ⑦ 주변국들이 표(表)와 조공을 바치고 있고 바다 건너 먼 나라들도 정월 문안을 아뢰고 있는데, 고구려가 이들이 수나라에 바치는 조공 상품과 보물들을 빼앗고 왕래하는 길을 끊어 버리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하는 이유를 대외적 이유 외에도 고구려의 국내 상황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쟁의 정당성을 만들어 갔다.

또, (고구려는) 법령이 가혹하고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거두고, 권신과 호족들이 국정을 전횡하며 봉당을 결성해 당파싸움을 하는 일이 일상적인 관습이 되어 버렸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 같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원통한 일을 밝혀 달라고 하소연 할 수도 없다. 해마다 재난과 흉년이 들어 집집마다 기근이 들었는데도 전쟁은 그칠 날이 없고, 노역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백성들의 힘은 물

1 『隋書』煬帝紀. 대업 8년(612) 봄 정월 辛巳. 壬午.

건을 운반하는데 다 써버렸기에 힘없는 몸이 구덩이나 벼랑 끝에 곤두박질을 치니 백성들 누구라도 (고구려의 정치를) 따르겠는가? 나라 안의 슬프고 두려운 폐단을 이루 다 이겨낼 수 없다. 머리를 돌려 그 나라의 국내를 보면 백성들은 각자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백발노인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가혹한 폭정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민속과 풍습을 살펴 북쪽의 추운 지역의 백성들을 위로하되 (고구려왕의) 죄는 엄중하게 물어 다시는 군대를 동원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이에 직접 6군(軍)을 지휘하여 정벌에 나서서 그들의 위태로운 어려움을 구제하고 하늘의 뜻에 따르고자 한다.²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려는 정당성은 앞에서 언급한 대외적 이유 외에도 고구려 사람들을 과중한 착취에서 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① 고구려 법령이 가혹하고 이중·삼중으로 세금을 거두어 백성을 지나치게 착취하고 있음, ② 권신과 호족들이 국정을 전횡하며 봉당을 결성해 당파싸움을 빈번하게 하고 있음, ③ 원통한 일을 밝혀 달라고 하소연하더라도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유행하여 사회 정의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음, ④ 해마다 재난과 흉년이 들어 집집마다 기근이 들었는데도 전쟁은 그칠 날이 없고, 백성들은 과중한 부역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수백만의 군대와 황제의 6군(軍)을 지휘하여 정벌에 나서 그들을 구제하고 하늘의 뜻에 따르고자 한다고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쟁 명분을 선포한 수양제는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군대를 구성하였다. 군대의 편성 또한 좌 12군과 우 12군, 황제 6군으로 나누어 구성할 만큼 방대한 규모였다. 출발은 모두 탁군에서 함께 이루어졌으며 좌군과 우군의 진격로는 서로 다른 여러 길을 이용하였고, 최종적인 목표는 고구려의 평양성이었다. 좌 12군과 우 12군의 행

군로 명칭은 다음과 같다.

왼쪽의 제1군은 루방(鑠方)의 길로, 제2군은 장잠(長岑)의 길로, 제3군은 해명(海冥)의 길로, 제4군은 개마(蓋馬)의 길로, 제5군은 건안(建安)의 길로, 제6군은 남소(南蘇)의 길로, 제7군은 요동(遼東)의 길로, 제8군은 현도(玄菟)의 길로, 제9군은 부여(扶餘)의 길로, 제10군은 조선(朝鮮)의 길로, 제11군은 옥저(沃沮)의 길로, 제12군은 낙랑(樂浪)의 길로 진군한다. 오른쪽의 제1군은 점선(黏蟬)의 길로, 제2군은 함자(含資)의 길로, 제3군은 혼미(渾彌)의 길로, 제4군은 임둔(臨屯)의 길로, 제5군은 후성(候城)의 길로, 제6군은 제해(提奚)의 길로, 제7군은 답둔(踏頓)의 길로, 제8군은 숙신(肅慎)의 길로, 제9군은 갈석(碣石)의 길로, 제10군은 동이(東暉)의 길로, 제11군은 대방(帶方)의 길로, 제12군은 양평(襄平)의 길로 진군한다. 이 많은 군대는 먼저 조정의 작전계획에 따라 쉬지 말고 계속 행군하여 모두 평양성에 집결하라.³

수나라 군대는 육군과 수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수군(水軍)에 관한 기록은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사료에는 “거대한 배에 돛을 높이 달고 천리 뱃길을 구름이 날아가듯, 강과 산을 지나 번개같이 횡단하여 평양으로 향했다”라는 기록, 회수와 장강 유역에서 수수, 노수, 배찬수 등 7만여 명을 징발하여 전함 300여 척을 건조했다는 기록을 종합하면 당시 수군의 병력은 최소 6만에서 7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인원이 모두 3백여 척에 승선한다면 전함 1척에는 대략 200여 명의 군사, 무기, 식량 등이 실렸을 것이다. 이는 당시 전함이 대규모 전쟁 수행을 위해 상당히 거대하게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식량 보급선이 별도로 건조되었다고 가정하면 대략 배 1척에 100여 명이 승선한다는 추정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전함들이 고구려성을 함락하기 위해 사료의 기록대로 산동을 출발해 ‘入鴨綠水’ 곧 압록수 입구로 들어가 치열

2 『隋書』煬帝紀. 대업 8년(612) 봄 정월 辛巳. 壬午.

3 『隋書』煬帝紀. 대업 8년(612) 봄 정월 辛巳. 壬午.

한 전쟁을 벌였다면 고구려 압록수는 거대한 전함 수백 척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만큼 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야 한다. 또한 하류에서 상류로 이어져서 평양성까지 연결되는 강이어야 한다. 후술하겠지만 두우의 『통전』에는 고구려 압록강이 당척으로 300보 곧 압록수의 평균 너비가 580여 미터라고 기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나라는 대규모 전쟁 피해를 줄이고 고구려를 회유하고 인구 확보를 위해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었다.

만약 고구려왕 고원(高元)이 군문(軍門)에 머리를 조아리고 스스로 사구(司寇)를 찾아오면 당연히 목인 것을 풀어주고 그가 묻힐 관(棺)도 태워버리며 큰 은혜를 내릴 것이다. 그 나머지 신하들도 조정에 귀순하면 모두를 위로하고 어루만지며 각자 안정된 생업을 누리게 할 것이며, 재능에 따라 등용되 중국인과 오랑캐의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다. 군영(軍營)의 진지는 정숙(整肅)하도록 해야 하니, (고구려 땅에 들어가거든) 말이 먹는 풀이나 땔나무라도 철저히 단속하여 추호라도 범하지 말라. 은혜와 용서를 홍보하고, 무엇이 화복(禍福)인지를 깨우쳐 주어 위협에 처한 사람들끼리 서로 구제해 주는 것같이 하되, 관군(官軍)에 대항하는 자는 국가에 형벌이 있으니, 화근(禍根)을 남겨 두지 않게 명확하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 짐의 뜻이라고 하여라.⁴

좌우 24군은 모두 1,133,800명이고, 군량과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그 두 배나 되었다. 이 기록이 맞다면 최소 300여만 이상의 인력이 동원된 전쟁이었다. 『수서』는 “계미(癸未)일에 제1군이 출발하기 시작하여 40일이 지나서야 출발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 행군하는 깃발(旌旗)이 천 리나 이어져 있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많은 군대를 출동시킨 일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⁵

3. 수나라 군대의 요서(遼西) 진출과 요수(遼水)의 위치

대업 8년(612) 3월, 수양제는 고구려의 제1 방어선인 요수에 도착하였다. 수양제가 요수에 도착하는 상황을 『자치통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양제는 비로소 군대를 지휘하여 요수(遼水)에 도착하였다. 많은 군대는 모두 강가에 집결해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나 고구려의 군사들이 강물을 장애물로 삼아 방어하였기에 수나라 군대는 건너갈 수 없었다…수양제가 공부상서(工部尚書) 우문개(宇文愷)에게 요수에 3개의 부교(浮橋)를 만들라고 명을 내렸다. 서안(西岸) 쪽이 완성되어 동쪽에 접안시키려고 하였으나 부교가 짧아 닿지 못했다. 많은 고구려 군사들이 와서 대항하자 수나라 군사 중에 용맹한 자들은 다투어 접전하였으나 고구려 군대가 높은 언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공격하였기에 수나라 군사들은 강 언덕에 올라갈 수 없었다.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 맥철장이 부교에서 강 언덕으로 뛰어가자 호분낭장(虎賁郎將) 전사웅(錢士雄)과 맹의(孟義) 등도 함께 돌진하였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고 군대를 신고 있는 부교를 다시 서쪽 강기슭으로 옮겨갔다…다시 소부감(少府監) 하조(何稠)에게 명하여 다리를 접안시키라고 하자 2일 만에 완성하였다. 여러 부대가 번갈아 가며 계속 진격하여 동쪽 강변에서 크게 싸웠다. 고구려 군대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만여 명이나 되었다. 여러 부대는 승세를 타고 요동성으로 진격하여 성을 포위하였다.…수양제가 탄 수레가 요(遼) 땅에 도착하자 천하에 사면(赦免)한다는 조서를 내렸다. 형부상서 위문승(衛文昇)과 상서우승(尚書右丞) 유사룡(劉士龍)에게 명하여 요서(遼西)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10년간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고, 군(郡)과 현(縣)을 설치하여 서로 협조하며 다스리게 하였다.

4 『隋書』煬帝紀, 대업 8년(612) 봄 정월 辛巳, 壬午.

5 『隋書』煬帝紀, “總一百一十三萬三千八百, 號二百萬, 其餽運者倍之. 癸

未, 第一軍發, 終四十日, 引師乃盡, 旌旗亘千里, 近古出師之盛 未之有也.”

위 『통감』의 내용을 정리하면 ① 수양제는 조서를 발표 한 지 2개월 만에 요수에 도착하였음, ② 요수를 여러 곳에 서 건너기 위해 3개의 부교를 놓고자 하였으나 고구려의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③ 부교를 놓는 전투 과정에서 수나라 장수 맥철장, 호분낭장(虎賁郎將) 전사웅(錢士雄)과 맹의(孟義) 등이 모두 전사함, ④ 부교를 다시 서 쪽 강기슭으로 옮겨가면서 소부감(少府監) 하조(何稠)에게 명하여 다리를 접안시키고 2일 만에 완성함, ⑤ 수양제가 천하에 사면(赦免)한다는 조서를 내림, ⑥ 나아가 형부상서 위문승(衛文昇)과 상서우승(尚書右丞) 유사룡(劉士龍)에게 명하여 요서(遼西)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10년간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고, 군(郡)과 현(縣)을 설치하여 서로 협조하며 다스리게 함.

이러한 기록으로 보면 수양제는 점령한 요서에 군현을 설치하고 요서의 백성들에게 10여 년간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준 것으로 보아, 수양제가 도착한 ‘遼’는 요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수나라가 요서 지방의 말갈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각축을 벌이면서 대릉하 지역과 의무려산으로 진출한 것은 6세기 후반이다. 수나라가 581년 건국되면서 돌궐 세력이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수나라는 요서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고구려는 이러한 수나라의 요서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거란과 말갈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7세기 초 수양제의 요서 진출과 고구려와의 충돌은 미리 예견된 일이었다.⁶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수양제가 도착한 요수를 현재의 요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료를 검토해 보면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수양제가 도착한 요수는 대릉하일 가능성이 있다. 수당시대의 요수가 같은 강이므로 당나라 시대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한 사료에서 당시의 요수가 오늘날의 요하가 아니라는 단서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당서』 장검전

“당태종이 장군 장검(張儉)을 보내 번병(蕃兵)을 데리고 먼저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다. 장검의 군대는 요서에 도착했으나 요수(遼水)가 범람한지 오래되어 건너갈 수 없었다. …장검이 요수의 수초(水草)와 산천의 험이(險易)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자 당태종은 번병의 기보군(騎步軍)을 지휘하는 6군의 선봉으로 임명하였다.”⁷

이 기록을 보면 ‘요서에 이르렀는데 요수가 범람한지 오래되어 건너갈 수 없었다’라는 원문은 “至遼西爲遼水汎漲久而未渡”로, 요서에 요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정관 21년(647), 이적(李勣)은 다시 남소성에서 고구려를 크게 격파하고 군대를 철수시키며 파리성(頗利城)에 도착하여 백랑(白狼)과 황암(黃嶺) 두 강을 건너게 되었으나 물의 깊이가 모두 무릎 아래였다. 이적은 두 강물이 얕은 것을 꺾이하게 여겨 거란 사람들에게 遼源(요수의 발원지)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 대답하기를 ‘이 두 강물은 몇 리 정도 분산되어 흐르다가 남쪽에서 합쳐 흐르는데 그곳이 요수입니다. 하지만 요수의 발원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⁸

이 기록에는 ‘백랑’이 등장한다. 백랑은 대릉하의 상류이다. 그리고 『欽定熱河志』에서는 “大凌河는 白狼水”라고도 하였으므로, 백랑수 = 요수의 상류 = 요수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⁹ 『欽定熱河志』는 乾隆 46년(1781)에

7 『舊唐書』張儉傳. 太宗將征遼東, 遣儉率蕃兵, 先行抄掠. 儉軍至遼西爲遼水, 汎漲久而未渡, 太宗以爲畏懦召還儉, 詣洛陽謁見, 陳利害, 因說水草好惡山川險易, 太宗甚悅, 仍拜行軍總管兼領諸蕃騎卒, 爲六軍前鋒.

8 『通典』卷186. 二十一年, 李勣, 復大破高麗於南蘇, 班師至頗利城. 渡白狼黃嶺二水, 皆由膝以下, 勣怪二水狹淺, 問契丹遼源所在, 云此二水, 更行數里, 合而南流, 即稱遼水, 更無遼源可得也.

9 『欽定熱河志』, 大凌河之爲白狼水. 『欽定熱河志』는 清乾隆四十六年(1781)에 敕

6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7세기 국제정세와 고구려 수당 전쟁』, 동북아역사재단, 2023, 21~29쪽.

편찬된 것으로, 청대까지도 대릉하를 요수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명은 민족이나 종족의 이동과 함께 옮겨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 시대의 요수는 요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요하를 건너려면 동서 2백여 리, 남북 1천여 리의 요택을 먼저 지나야 하지만, 기록에서는 요서에 도착하자마자 요수를 만났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수나라는 성공적으로 요수 곧 오늘날의 대릉하에 성공적으로 부교를 놓고 건너서 요동성 공격을 준비하였다.¹⁰ 그러나 수나라의 요동성 공격은 쉽지 않았다. 고구려가 요동성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업 8년(612) 6월 기미일, 수양제는 요동성의 서쪽에 조립한 육합성(六合城)에 올라가 요동성을 바라보았다.¹¹ 육합성은 수나라 장수 하조(何稠)가 만든 군사 행동을 위한 조립식 목성(木城)으로, 둘레는 8리이고 성과 성가퀴를 합한 높이는 열 길이나 되었다. 성 위에 갑사들이 포진하여 사방에 병창기와 의장기를 세웠다. 방향별로 1개의 누대(樓臺)를 설치하고, 누대 아래에는 3개의 문(門)을 만들었다. 수나라는 이 조립식 성을 밤에 만들었는데, 이를 지켜본 고구려군은 이 성을 마치 신이 만든 것 같다고 하였다.¹²

수나라는 육합성에서 요동성을 관찰한 후 요동성 아래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고구려는 나와서 항전하였으나 불리하여 다시 성으로 들어가 수비하였다. 요동성의 함락이 장기전으로 갈 것을 예상한 수양제는, 고구려 군중에서 항복하려는 자가 있다면 공격을 중지하고 받아줄 것이라고 회유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군사들은 항복을 도모하는 척하며 오히려 수비를 강화하였다. 수양제는 이러한 고구려

의 전략을 깨닫지 못하였다.¹³ 수양제는 고구려의 반응이 없자 몇 차례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요동성은 견고하였다. 수양제는 휘하의 장군들이 요동성을 공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힐책하였다.

“공 등은 스스로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자부하지만, 그것은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영예로 얻은 것이라 어리석고 나약한 능력으로 나를 보좌하려고 한다. 도성에 있을 때 그대들은 모두 내가 전장에 나오는 것을 꺼렸는데 아마도 내가 직접 패전하는 것을 볼까 두려웠던 것이라. 내가 지금 와서 그대들이 하려는 짓을 보니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그대들은 죽음이 두려워 힘써 싸울 생각을 앓는데 내가 그대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하자 여러 장수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낮빛이 변하였다.¹⁴

위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요동성은 요수, 곧 대릉하에서 멀지 않은 곳, 요하를 건너기 전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설처럼 현재 요녕성 요양을 요동성으로 보는 견해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요양은 당시 동서 2백여 리의 요택을 지나 요하를 건너야 도달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4. 수나라 군사 집결지, 압록수(鴨綠水)와 살수대첩(薩水大捷)

고구려 시대 요수가 대릉하라면 지금의 요하는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바로 압록수다. 사료에 등장하는 압록수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찾아보자.

수나라 양제가 요동성 공격에 난항을 겪고 있는 동안 우중문은 낙랑도행군을 지휘하여 고구려 군을 격파하면

撰되었다.

¹⁰ 3월 갑자일에 요수를 건넜다고 되어 있으나 3월에는 갑자일이 없으며 4월에는 갑자일이 있어 정동민은 그의 연구 「고구려의 수군 격퇴와 그 영향」(『7세기 국제정세와 수당전쟁』, 동북아역사재단, 2023)에서 4월에 요수를 건넌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히고 있다.

¹¹ 『隋書』煬帝紀, 대업 8년(612) 6월 己未.

¹² 『隋書』何稠傳: “初, 稠制行殿及六合城. 至是, 帝於辽左与贼相对, 夜中施之. 其城周回八里, 城及女垣合高十仞, 上布甲士, 立仗建旗, 四隅置阙, 面别一观, 观下三门, 迟明而毕.”

¹³ 『隋書』高麗傳.

¹⁴ 『通鑑』卷181.

서 압록수에 이르렀다. 우중문이 압록수에 도착하자,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그의 진영으로 직접 찾아와 거짓으로 항복하였다. 우중문은 수양제로부터 “고구려왕 고원이나 을지문덕을 만나면 죽이지 말고 꼭 사로잡으라”는 밀명을 받은 바 있었다.¹⁵ 을지문덕이 찾아왔을 때 우중문은 그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상서우승(尚書右丞) 유사룡(劉士龍)이 항복하려는 사람은 위무해야 한다고 막았기에, 우중문은 을지문덕을 놓아주었다. 그러나 곧 후회한 우중문은 사람을 보내 “상의할 말이 있으니 다시 오라”고 하였지만, 을지문덕은 이를 듣지 않고 이미 강을 건너 사라져 버렸다. 이후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왔다.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뚫고, 오묘한 계산은 지리를 통달하였으니, 전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할 줄 알고 돌아가라’는 내용이었다. 우중문이 답서를 보내 설득하려 했으나 을지문덕은 그 편지를 불태워 버렸다.¹⁶

『수서』 우문술전의 내용을 보면, 우문술이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수나라 9군의 군량은 이미 고갈된 상태였다. 이때문에 그는 우중문과 상의하여 철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중문은 정예병으로 을지문덕을 추격하면 공을 세울 수 있다며 고구려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문술은 역시 이전 여러 전투에서 승전을 많이 하였으므로, 우중문의 의견에 동조하였고 압록강에서 동쪽으로 진군하여 살수에 이르렀다.

우문술의 군대는 살수에서 평양성 밖 30리 떨어진 곳까지 진격하여, 그 지역의 산세 등 지형을 이용해 진영을 구축하였다. 그러자 을지문덕은 다시 사자를 보내 거짓으로 항복을 알렸다. 이에 우문술은 “우리 군대를 돌아가게 하려면 고구려왕 고원(高元)이 행재소에 가서 수양제를 만나뵈어라”라고 하였다.¹⁷ 수나라 군사들이 피폐해진 것을 본 우문술은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게다가 평양성은 견고하여 무리하게 공격을 감행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우문술은 을지문덕의 항복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수나라 대군이 후퇴하면서 반 정도 살수를 건넌을 때 고구려군이 강을 건너지 못한 수나라 군사를 공격하였다. 이미 크게 무너진 수나라 군대는 통제할 수 없었고, 우문술이 이끌던 9군은 완전히 패하였다. 수나라 군사들은 쉬지 않고 압록수까지 달아나 강을 건너기까지 450리를 행군하였다. 이는 평양성 부근에서 압록수까지의 거리가 대략 450리 정도임을 보여준다. 평양성 함락을 목표로 살수를 건넌 9군은 총 30만 5천 명이었으나, 압록수까지 살아서 되돌아간 병력은 겨우 2,700명에 불과하였다.¹⁸

위 『수서』 우문술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① 우문술군이 압록수에 왔을 때 식량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으며, ② 압록수에서 동쪽으로 더 가야 살수가 있으며, ③ 살수를 지나 평양성 30리까지 와서 수나라 군대가 진을 쳤으나, ④ 우문술 군대는 식량이 떨어지고 군사가 지쳐 있었다. ⑤ 더구나 평양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으로 쉽게 함락될 수 없음을 우문술이 인식하고 있었다. ⑥ 이를 인식하고 수나라 군대는 후퇴를 결정하였으며, ⑦ 고구려군은 이를 추격하여 격파하였고, 살아서 다시 압록수로 돌아간 수나라 군사는 2,700명이었다. ⑧ 대패하고 살아 돌아간 병사는 쉬지 않고 달려 평양성에서 압록수 유역까지 450리를 행군하여 본영으로 돌아갔다.¹⁹ 대패하고 돌아간 상황을 보여주는 문장은 “九軍敗績，一日一夜，還至鴨綠水，行四百五十里”이다. 이 문장을 알기 쉽게 해석하면 “구군이 ‘패적(敗績)’ 곧 ‘대패’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행군하여 450리를 행군하여 압록수에 이르렀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一日一夜’를 ‘하루’로 번역할 수 없다. 전쟁에서 패한 보병이나 기병이 하루에 450리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리를 최소 4킬로미터로 환산

15 『隋書』于仲文傳. “仲文先奉密旨，若遇高元，及文德者，必擒之”

16 『隋書』于仲文傳.

17 『隋書』宇文述傳.

18 『隋書』于仲文傳.

19 『隋書』于仲文傳.

하면 450리는 약 180킬로미터가 되고, 10리를 5킬로미터로 잡는다면 225킬로미터가 된다. 이 거리는 어떤 기병이나 보병도 하루 안에 갈 수 없는 거리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一日千里’라는 말도 문자 그대로 ‘하루에 천리를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매우 빠르다’라는 비유적 표현이다. 사료 속의 “一日一夜, 還至鴨綠水”에서 ‘一日一夜’이 표현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수나라 군대가 쉬지 않고 행군하여 압록수로 되돌아갔으며, 그 이동 거리가 450리였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사료가 제시하는 ‘450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록은 평양성에서 압록수까지의 거리를 450리로 보고 있다. 다양한 사료에서도 평양성과 압록강 사이의 거리를 450리로 기록하고 있다. 『자치통감』의 기록을 살펴 보자.

통감(181권): 좌익위대장군(左翊衛大將軍) 우문술(宇文述)은 부여도(扶餘道)로 나가고, 우익위대장군(右翊衛大將軍) 우중문(于仲文)은 낙랑도(樂浪道)로 나갔으며, … 검교(檢校)의 위 위호분 낭자에(右禦衛虎賁郎將) 위문승(衛文昇)은 증지도(增地道)로 나가 모두 압록수의 서쪽에서 집결하기로 하였다. 신당서(新唐書)를 보면 마비수(馬訥水)는 말갈(靺鞨)의 백산(白山)에서 흘러나오는데 빗갈이 물오리의 머리 색깔이 푸르기에 압록수라고 불렀으며 평양성(平壤城)은 압록수의 동남쪽에 있다. 금(金) 지역 사람들은 압록수를 혼동강이라 불렀다. 두우(杜佑)가 말하길 압록수는 강폭이 300보로 평양의 서북 450리, 요수(遼水)의 동남 480리에 있다.²⁰

위 『통감』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 ① 수양제는 우문술, 우중문 등 24군의 장군들이 모두 탁군을 출발하여 동쪽으로 진군하다가 낙랑, 요동, 옥저, 현도, 양평, 갈석, 수성, 중지 등을 지나 압록수의 서쪽에 모이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② 이로 보면 압록수 동쪽에 최종 목적지 평양성이 있어야 한다. ③ 그리고 압록수는 말갈의 백산(白山)에서 나오며, 이 압록수를 금나라 사람들은 혼동강(混同江)이라 불렀다. 이로 보면 오늘날의 압록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압록강은 혼동강이라고 불린 적이 없다. ④ 『통전』을 편찬한 두우에 따르면 압록수는 평균 강폭(凡闊)이 300보, 약 580미터이며, ⑤ 평양성 서북쪽 450리를 압록강이라고 부르며, ⑥ 요수에서는 동남 480리라고 하였다. 이 기록의 요수를 오늘날의 요하로, 압록수를 오늘날의 압록강으로 본다면 거리도 맞지 않고 방향도 일치하지 않는다.

고구려 시대 압록수를 혼동강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은 많이 있다. 그 단서를 남송대 사료인 1270년에 간행된 『주자어류(朱子語類)』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북방의 금나라와 전쟁을 하던 남송은 금나라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아래의 사료를 분석해 보자.

『朱子語類』 卷86

女真是鴨綠江에서 일어났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天下에는 三大水가 있다. 곧 黃河, 長江, 鴨綠이 그것이다.²¹

『朱子語類』 卷79

주자는 말하기를 천하에 오직 세 개의 큰물이 있는데 가장 큰 것으로 揚子江, 黃河 및 混同江이다. 混同江은 발원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오랑개(금나라)의 옛 소굴이 바로 이 강에 임하여 동남으로 비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그 하류가 遼海가 되고 遼東과 遼西는 이 강으로 구분한다.²²

『朱子五經語類』 卷4書22

천하에는 三大水가 있는데, 매우 큰 강으로 혼동강이 있다. 혼동강은 그 발원지를 알지 못하며 금나라의 옛 수도가 이 강 유역에 있으며 강이 비스듬히 동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21 『朱子語類』 卷86.

22 『朱子語類』 卷79.

20 『自治通鑑』 卷181.

그아래는遼海가되며遼東과遼西를이강으로써구분한다.²³

이 사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송나라 시대에 천하의 세 큰 강은 장강, 황하, 압록이며, ② 압록을 혼동강이라고도 하며, ③ 이 압록을 경계로 요동과 요서를 구분하였으며, ④ 압록강, 곧 혼동강이 흘러 들어가는 바다가 요해(遼海), 곧 오늘날의 발해라고 하고 있다.

주희가 남긴 기록이 맞다면 송나라 때까지 압록은 요동과 요서를 가르는 강, 곧 요하일 수밖에 없다. 즉 압록수 = 혼동강 = 요하이며, 압록수 곧 혼동강의 발원지로 제시된 백산은 오늘날의 백두산이 아니라 요하 상류의 어느 지점에 있는 산으로 이해해야 한다.

압록강을 혼동강으로 불렀다는 기록은 『자치통감』에도 있는데, “금나라 사람들은 압록수를 혼동강으로 불렀다”라고 하며 “거란의 동북 장백산”에서 발원한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⁴ 또한 『武經總要』에도 “압록수는 고려국(중심인 평양성)의 서쪽에 있으며, 강의 발원지는 말갈국이며, 압록수는 고구려의 中地이자 天塹”이라고 하여 북쪽 말갈국, 곧 여진의 중심지에서 발원한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⁵

『自治通鑑』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장량이 수군을 거느리고 동래를 출발해 바다를 건너 사비성을 급습하였다. …구효충 등은 압록수에서 무력을 과시하였다. (두우가 말하길, 압록수는 평양성의 서북 450리에 위치하였는데 그 강의 원류는 말갈의 장백산에서 나온다. 『한서』에서는 마자수라고 하지만 지금은 혼동강이라고 부른다. 송나라 이심전(李心傳)은 말하길, 압록수의 수원(水源)은 거란 동북에 있는 장백산에서 발원하는데, 옛 숙신씨의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여진인들이 살고 있다.”²⁶

이 『자치통감』의 기록 역시 당태종 시기 구효충이 수군으로 공략한 고구려의 압록수가 혼동강이며, 그 발원지가 말갈의 장백산, 곧 여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란의 동북 장백산이라고 하고 있다. 백두산과 다른 거란의 동북 여진지역에 장백산이 묘사된 고지도는 <지도 1>과 같다. 백두산과 고구려 시대 압록수의 발원지 장백산, 곧 백산을 다르게 그린 고지도는 많이 발견된다.

장량을 비롯한 당나라 수군의 고구려 공격로에서도 그들이 도착한 압록이 오늘날의 요하임을 추론할 수 있다. 당 태종은 장량을 평양도행군대총관으로 임명하고 수군을 인솔시켜 그를 산동의 내주에서 배로 질주하여 평양성으로 달려가게 하였다. 『구당서』 고려전에는 “형부상서 장량을 평양도 행군대총관에 임명하여, 장군 상하(常何) 등과 강(江)·회(淮)·영(嶺)·협(碭)의 날랜 군사 4만과 전선 500척을 끌고 래주로부터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달려가게 하였다”라고 하였다.²⁷ 그리고 영국공 이적을 요동도행군대총관으로 특진시키고, 휘하 보병과 기병 6만 명으로 요동으로 진격시키며, 장량의 수군과 평양성에서 합류하도록 하였다. 당태종도 직접 6군을 거느리고 이들과 회합하고자 하였다. 장량의 군대와 이적의 부대가 한 곳으로 모이는 기록은 “兩軍合勢 太宗親御六軍以會之”로 기록되고 있다.²⁸

전쟁기록을 보면 평양성으로 가기로 약속한 장량 수군의 일파인 정명진은 북한 평양으로 향하지 않고 요동남단 사비성을 무너트렸다. 정명진은 사비성을 무너트리고 고구려 사람 8천여 명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곧 압록수로 들어가 유격 작전을 전개하였다. 수군 장량은 다시 부장 장금수 등과 함께 평양성으로 향하지 않고 건안성을 공략한다. 장량의 수군은 사비성-압록-건안성의 순으로 북상하며 요동반도에서 요하 유역 건안성(요녕성 개주)으로 향했음을 알 수 있다. 황제 소속 6군, 이적의 6만, 장량의 수군

23 『朱子五經語類』 卷4書22.

24 『資治通鑑』 卷181, 卷197.

25 『武經總要』 前集 卷16下

26 『通鑑』一百九十七.

27 『구당서』 고려전.

28 『구당서』 고려전.

이 요하 유역에서 합류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서 정명진이 유격작전을 한 압록을 지금의 압록강으로 해석하면 요동반도 비사성에서 오늘날의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요동반도를 지나 요하 하류로 돌아와 건안성에서 전투한 것이 된다. 논리적,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다. 수군이 유격작전을 시도한 압록은 요동반도 남단의 비사성과 요하 유역 건안성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 곧 요하 하류일 수밖에 없다.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에서 함락시킨 성은 모두 10개로 현도(玄菟)·횡산(橫山)·개모(蓋牟)·마미(磨米)·요동(遼東)·백암(白巖)·사비(卑沙)·맥곡(麥谷)·은산(銀山)·후황(後黃) 등으로 모두 요하 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성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⁹ 당태종은 요주, 개주, 압주 등 3개 주의 백성 7만여 명을 중국으로 사민시켰다. 당태종은 안시성 함락 실패 후 다시 요택지대를 흐르는 발착수를 통해 철군하였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당태종이 발착수(渤錯水)에 도착해보니 진흙창이 80리나 이어져 말이나 수레는 지나갈 수 없었다. 장손무기와 양사도 등이 만 명을 데리고 나무를 베어 길을 만들고 수레를 이어 다리를 놓았다. 당태종도 즉시 이 공사를 도와주었다. 10월, 군대가 모두 강을 건넜다...³⁰

평양성을 함락하러 온 당태종이 요서의 요수를 지나 동서 200여 리, 남북 1000여 리의 요택을 건너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요택을 지나야 평양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양성이 북한 평양이라면 황제가 배를 바로 평양으로 향했을 것이다. 황제가 목숨을 걸고 요서로 들어와 요택을 건너 요동성, 안시성, 건안성 등 수많은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한 이유는 요하 유역에 평양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이 조선시대의 압록강과 다르다

고 인식한 조선 중기의 학자도 있다. 바로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이다. 그가 1707년에 편찬한 『동국역대총목(東國歷代總目)』 부지지(附地誌) 편에서 조선시대 압록강을 “의주 서북에 있으며 용만이라고도 한다. 발원지는 백두산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흐르면서 수백 리를 흐르다가 함경도 경계를 지난다”고 함으로써 조선시대 압록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선시대 이전 또 하나의 압록강을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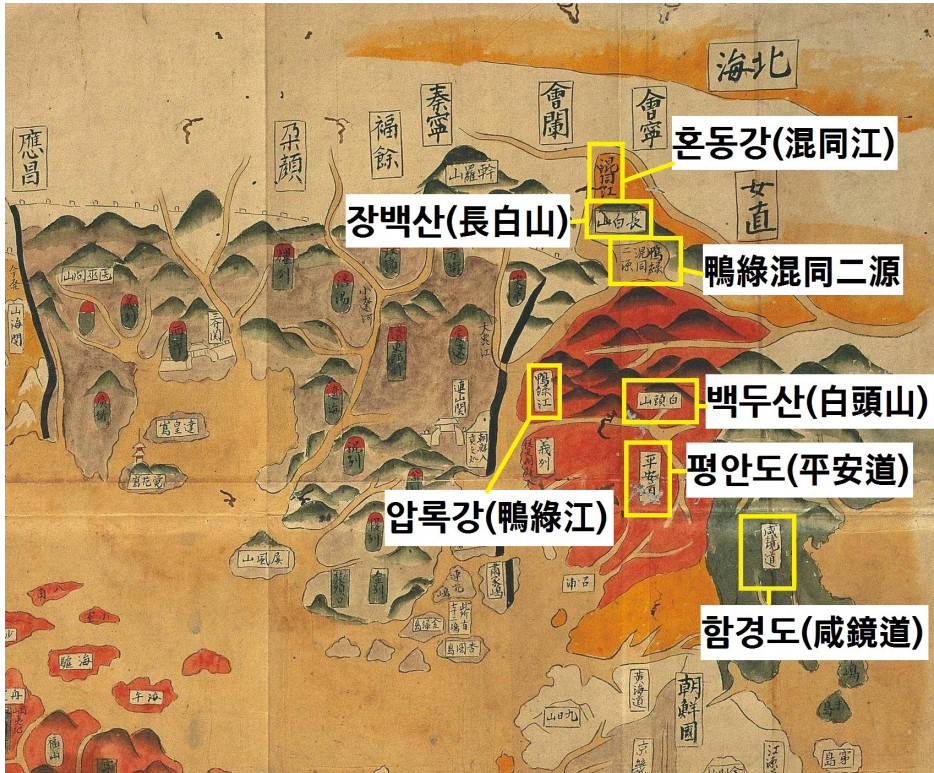
『유찬(類纂)』을 살펴보면 황하와 압록이 요해로 들어간다고 하였고, 천하의 3대강이 황하, 장강, 압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참고해 보면 천하 3대 강이 되는 압록은 서북에서 발원하여 동북에 이르는데, 우리나라 (조선의) 압록은 그 크기에서 황하, 장강과 비견할 수 없으니 『類纂』에서 말하고 있는 압록은 지금 우리의 압록이 아닌 거 같다. 우리나라의 『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지리지』도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여진이 일어난 곳에 압록강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압록과 다른) 이 압록강도 같이 기록한다.³¹

곧 조선시대의 홍만종은 조선시대의 압록강과 다른 고대의 압록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조선시대 이전의 압록강에 대해 주희는 천하 3대 강이라고 하였고, 서북에서 발원하여 발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발해는 요동반도 서쪽이므로 현재 압록강이 흘러 들어가는 황해와는 전혀 다른 지역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하는 동요하와 서요하가 합쳐져서 요하 본류가 된다. 서요하는 몽골의 시라무렌강과 같은 물줄기이다. 서요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동요하와 합쳐져서 본류를 이룬다. 그리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개원, 철령, 심양, 요양, 해성 등의 요하의 지류들과 합쳐지면서 발해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홍만종이 언급한 압록은 발해로 흘러 들어가는 주희의 압록 곧 요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29 『자치통감』 권198.

30 『신당서』 고려전.

31 『東國歷代總目』附地誌



〈지도 1〉 大清廣輿圖

장백산과 백두산이 다르게 그려져 있다. 장백산은 백두산 서북쪽에 위치하며 압록과 혼동의 물줄기로 되어 있다.

강의 흐름도 북에서 남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간다.

백두산에서도 압록강이 그려져 있으며 동에서 서로 흐른다. 장백산과 압록(혼동)과 물 흐르는 방향이 다르다.

14세기 이전의 압록은 모두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압록강이라는 지명이 한반도 쪽으로 옮겨온 청대에도 여전히 장백산, 혼동강, 압록이라는 이름이 요동 북부에서 살아남아 있음을 지도는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성이 만주 벌판의 중심 도시 요녕성 요양이라는 기록은 없을까. 조선시대까지 사행을 갔다 온 여러 학자들은 요양이 고구려의 도읍지라고 알고 있었다. 우선 『삼국사기』, 『동국통감』, 『동환록』, 『지봉유설』, 『미수기언』, 『성호사설』, 『연려실기술』, 『동사』 등은 고구려의 천도를 졸본부여(기원전 37)-국내성(유리왕 22, 기원후3)-환도성(산상왕13, 기원후 209)-평양(동천왕 21, 기원후 247)-환도성(고국원왕 12, 기원후 342)-평양 동쪽 황성(고국원왕 13, 기원후 343), 기원후 343)-평양성(장수왕15, 427)-장안성(평원왕 28, 기원후 586)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서들과 개인 문집들이 대부분 동천왕대의 평양과 장수왕대의 평양성 2개의 평양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요동에 또 하나의 평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하면 사람들이 해괴하다고 말하고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북한 평

양 한 곳에 고정해 놓고 우라(길림), 영고탑 등이 고구려 땅임을 잊은 채 한사군을 죄다 압록강 안쪽에 밀어 넣고 대동강을 패수라 하는 바람에 조선의 옛 땅이 저절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시대 최부의 『표해록』은 명확하게 요양을 고구려의 수도로 인식하였다. 최부는 제주도에 부임해 있던 중 부모의 상을 당해 육지로 향하다가 중국 동남 해역에 표류하였다. 표류시기부터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것이 『표해록』이다. 그가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머물렀던 요양(遼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다.

『漂海錄』1488년 5월 24일

“이 지방(요양)은 원래 고구려의 도읍인데 중국에 빼앗긴 지 천여 년이나 되었고, 우리 고구려의 풍속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아서 고려사(高麗祠)를 세워 근본으로 삼고 공경하게 제사지내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니, 근본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³²

『漂海錄』1488년 5월 28일

“요동(요양)은 옛날 우리 고구려의 도읍이었는데 당 고종에게 멸망하여 중원에 예속되었습니다. 五代 시대에 발해대씨의 차지가 되었으나 후에 또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에 병탄되었습니다.…… 또한 성 동쪽에는 동녕위성(東寧衛城)을 별도로 쌓았는데 수산(首山), 천산(千山), 목장산(木場山), 낙타산

32 舊唐書 高麗傳. “命刑部尚書 張亮 為平壤道行軍大總管, 領將軍常何等 率江淮嶺嶺勁卒四萬 戰船五百艘 自萊州汎海趨平壤”.

(駱駝山), 태자산(太子山), 행화산(杏花山) 등 여러 산이 성 서쪽, 남쪽, 동쪽을 빙 둘러치고 있었으며 그 북쪽은 평평하고 탁 트여서 끝이 없는 벌판이었습니다.”

최부는 『표해록』에서 ① 요양이 고구려의 도읍지이며, ② 고구려의 풍속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고려사(高麗詞)에 제사를 지내고 있고, ③ 요양의 지세는 동·서·남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이 평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

명나라의 지리지 『대명일통지』 역시 요동도지휘사사조에서 장수왕의 평양성이 요동에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살수(薩水)의 위치도 언급하고 있다.

평양성: 평양성은 압록강(鴨綠江) 동쪽에 있는데, 일명 왕검성으로 곧 기자의 옛 나라이다. 성 바깥에는 기자의 묘가 있다. 한나라 때는 낙랑군의 치소였으며 쯔 義熙 연간 후에 그 왕 高璉(역자: 장수왕)이 처음으로 이 성에 거하였다. 후에 이 평양성을 西京이라 하였다. 원나라 때 東寧路가 되었다.”³³

薩水: 살수는 鴨綠江 동쪽, 평양성 서쪽에 있다. 수나라 장수 신세웅이 여기서 전사했다.”³⁴

『대명일통지』는 명나라 전기에 편찬된 것으로, 요동도지휘사사조의 고적은 모두 요동에 있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명일통지』의 편찬자들은 조선 의주 부근 압록강을 알고 있었다. 위 『대명일통지』 평양성과 살수에서 언급한 압록강은 ‘鴨綠’으로 표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鴨綠’이 아니라 ‘鴨渌’으로 표시하여 ‘綠’과 ‘渌’을 구분하였다. 『요사』에 기록된 ‘요나라 태조가 압록강에 와서 남시켰다’라는 압록강은 ‘鴨渌江’으로, ‘渌’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요 태조가 남시킨 강은 요나라 수도 상

경에서 가깝고 고려의 위협이 없는 서요하나 요하 상류였을 가능성이 크다.

『대명일통지』는 살수의 위치를 鴨渌江(요하) 동쪽, 요동도사 관할 범위 안에 있는 平壤城(요양) 서쪽에 있는 강으로 표시하고 있다.³⁵ 『대명일통지』의 살수와 평양성은 요동도사관할지역의 고적조에 표시한 것이므로 요동에 있어야 한다. 명대 요동도사 관할 범위는 오늘날 압록강에서 130여 리 떨어진 봉황성을 넘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통설대로 지금의 압록강이 고구려의 압록강, 청천강이 살수, 북한 평양이 평양성으로 보고 『대명일통지』의 기록을 해석하면 살수는 평양성(북한 평양) 북쪽, 압록강 남쪽이라고 기록되어야 한다. 『대명일통지』의 기록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앞에서 살펴본 중국 사료들의 기록대로, 압록수를 요하, 살수를 혼하, 평양성을 요양으로 놓으면 방향과 지리적 위치가 모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5. 『신당서』와 『주해도편(籌海圖編)』을 통해 본 압록강 당은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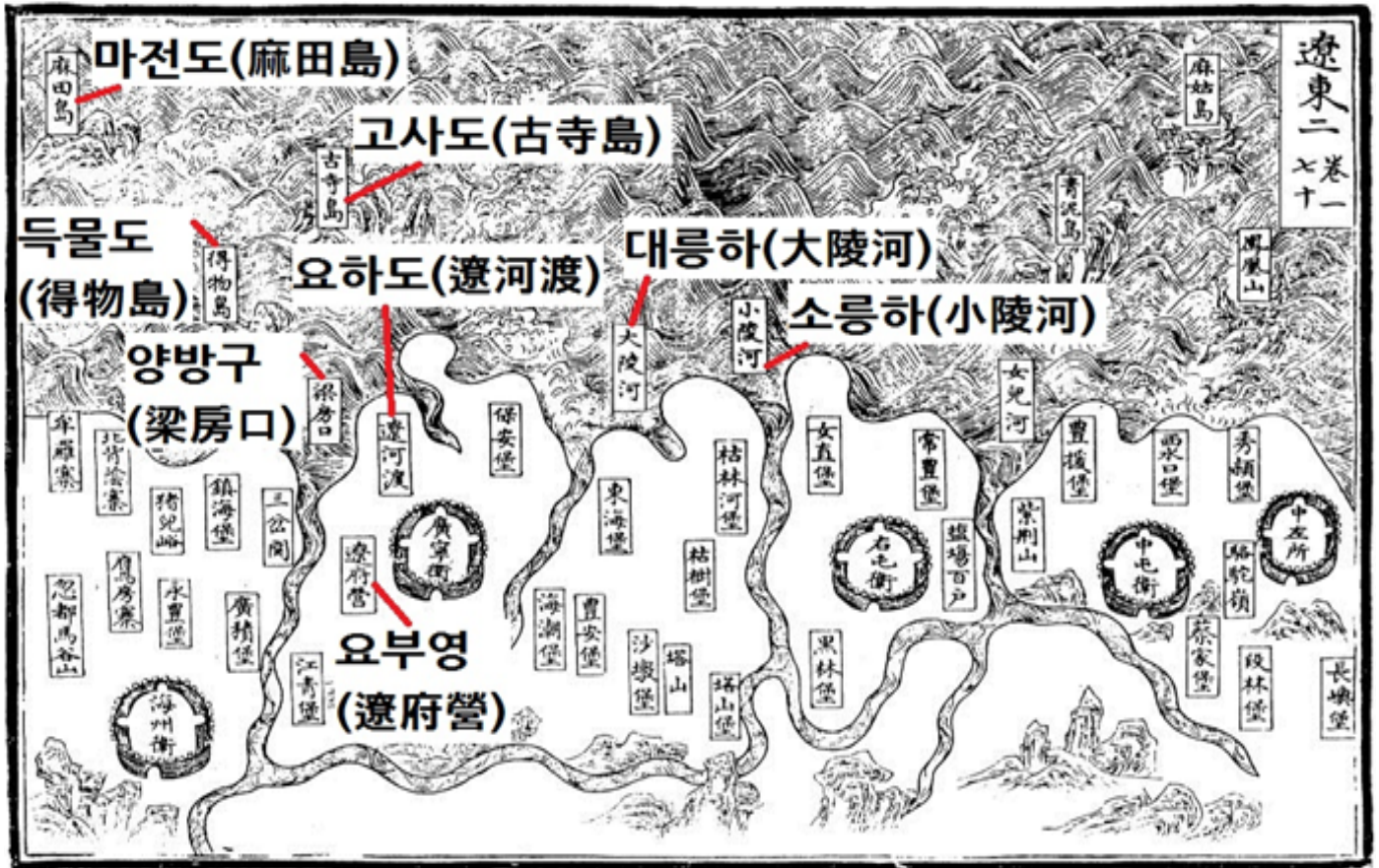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송대의 『주자어류』, 『자치통감』, 『무경총요』에서부터 1725년에 편찬된 청대의 『주자오경어류』에 이르기까지, 요하가 고대에 압록강 혹은 혼동강으로 불렸다는 기록은 많은 사료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요하가 고구려 시대 압록강, 그 입구가 당은포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록과 고지도를 살펴보자.

우선 명나라 후기 때 편찬된 『圖書編』이란 사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료에 고사도(古寺島)와 마전도(麻田島) 두 개의 섬과 당은포구(唐恩浦口)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다. 이 두 개의 섬과 당은포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

33 『大明一統志』 遼東都指揮使司 古蹟조.

34 『大明一統志』 遼東都指揮使司 古蹟조. “薩水在鴨渌江東, 平壤城西”.

35 『大明一統志』 遼東都附指揮使司 古蹟조.



〈지도 2〉 명대 편찬된 『주해도편(籌海圖編)』에 나오는 고지도

〈遼東二〉의 지도로 요하를 중심으로 요동과 요서의 중진과 그 사이 섬들을 그린 지도이다. 마전도, 고사도, 득물도, 요하도가 보인다. 『신당서』에는 마전도, 고사도, 득물도를 지나면 압록강 당은포구가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지도를 보면 마전도, 고사도, 득물도 세 개의 섬이 모두 요하도(遼河渡) 곧 요하로 가는 길목에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당서에 기록된 “고사도 등을 지나 나오는 압록강 당은포구는 현재 요하와 요하입구의 포구임을 알 수 있다. 지도는 동서가 반대로 그려져 있다.

대릉하 소릉하 쪽이 요서, 해주위 쪽이 요동이 되어야 한다.

하고 있다.

〈사료 1〉 『圖書編』

遼河渡·古寺島為廣寧衛界, 麻田島·平島為海州衛界.³⁶

〈사료 2〉 『圖書編』

參將經唐恩浦口或經濊貊沃沮, 直抵扶餘而西入大寧矣.

위 사료를 번역하면, 위의 〈사료 1〉 문장은 “요하도와 고사도는 광녕위와 경계를 이루고, 마전도와 평도는 해주위와 경계를 이룬다”라는 의미이다. 〈사료 2〉 문장은 “명나라의 참장이 당은포구를 경유하거나, 또는 예맥·옥저 지역을 지나 부여에 도착한 뒤 서쪽으로 들어가 대녕으로 갔다”라는 뜻이다.

명대의 광녕위(廣寧衛)는 요서 지방의 주요 거점으로 광녕좌둔위, 우둔위, 중둔위, 전둔위, 후둔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도 2〉의 우둔위와 중둔위는 광녕 우둔위와 중둔위를 말하는 것으로 요서의 중진이다. 〈지도 2〉에 표시된 해주위(海州衛)는 요하 동쪽 요동의 중진이다. 두 곳 모두 요서와 요동을 방어하는 핵심 군사기지이며, 해안에서 멀지 않은 중요한 도시였다. 두 개의 섬, 고사도와 마전도가 각각 요서의 광녕위, 요동의 해주위와 경계를 이룬다고 하였으므로, 이 두 섬은 발해만으로 들어와 요동과 요서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도 2〉의 ‘요하도(遼河渡)’는 ‘요하(遼河)’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요하의 입구에 있어야 한다. ‘渡’는 나루이므로 요하도는 요하입구의 포구를 말한다. 이러한 『도서편』의 기록은 〈지도 2〉와 비교해 보면 모두 요하 유역임을 알

36 『圖書編』

수 있다.

〈사료 2〉에 “당은포구를 거쳐 대녕(大寧)으로 가라”는 내용이 있다. 명 초기 주원장은 요동에 요동도사를 설치하는 동시에, 몽골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몽골 지역에도 군사를 파견하였다. 그는 몽골의 대녕에 대녕도사(大寧都司)를 세워 몽골 세력을 통제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대녕도사는 주원장 시기에 설치된 군사령부로, 현재의 내몽고자치구 적봉시 남쪽 영성현(寧城縣)에 해당한다. 위 기록은 그와 관련된 기록으로 당은포구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부여까지 올라간 뒤 서쪽의 몽골 적봉시 남쪽으로 가라는 기록이다. 요동에서 배를 타고 몽골로 갈 수 있는 강은 요하 밖에 없다. 따라서 당은포구는 요하 하구에 위치한 포구일 수밖에 없다.

명대 사료『圖書編』에 등장하는 마전도, 고사도, 당은포구는 『신당서』가탐의 도리기에도 등장한다.³⁷ 이 기록은 당나라 사신이 발해의 수도로 가는 노정을 기록한 것이다. 『신당서』의 기록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산동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 요동반도의 끝자락인 도리진에 도착한 뒤, 계속 배를 타고 〈지도 2〉에 표시된 마전도·고사도·득물도를 지나면 압록강 당은포구에 이르는 내용이다. 〈지도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마전도 등 여러 섬을 지나면 도달하는 곳은 요하 하구의 요하도이며, 현재의 요하와 동일한 위치이다. 즉 요하와 요하도(遼河渡)가 압록강과 당은포구로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사료와 고지도들을 종합하면, 고구려 시대의 요수, 압록강, 살수, 평양성, 당은포구를 지도로 표시하면 〈지도 3〉과 같다.



〈지도 3〉 사료를 통해 재구성한 요수·압록수·살수·당은포구·평양성의 위치

산동 등주(登州)에서 배를 타고 동북쪽 바닷길로 나아가 대사도(大謝島), 구흠도(龜歆島), 어도(淤島), 오호도(烏湖島)를 거치는 300리를 가고, 북쪽으로 오호해(烏湖海)를 건너서 마석산(馬石山) 동쪽 도리진(都里鎭)에 이르는데 200리이다. …또한 진왕석교(秦王石橋)와 마전도(麻田島)와 고사도(古寺島)와 득물도(得物島)를 지나는 1000리를 향해하면 압록강(鴨綠江)의 당은포구(唐恩浦口)에 이른다.

6. 결론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한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구려가 강력하여 수나라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 편입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이 수나라에 바치던 조공과 물자를 고구려가 차지하거나, 왕래하는 길을 끊어 버리는 일이 잦았다. 그런 의미에서 수나라의 통일은 불완전한 통일이었다. 수나라

37 『신당서』가탐의 도리기에 대한 연구는 복기대와 남의현 연구 참조. 복기대, 「〈신당서〉의 가탐 도리기 재해석」, 『인문과학연구』 57,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8; 남의현, 「중국의 〈중조변계사〉를 통해 본 한중국경문제」, 『인문과학연구』 57,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8.

는 이 불완전한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133만8천여 만명의 대군과 군사의 2배가 넘는 보급부대로 고구려를 침공했다. 이러한 침공에 대비해 고구려는 강을 중심으로 세 개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요수, 압록수, 살수가 그것이다.

이 전쟁을 연구한 기존의 성과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을 잘못 고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세 방어선 가운데 가장 서쪽의 요수(遼水)를 오늘날의 요하(遼河)로, 압록수를 현재의 압록강(鴨綠江)으로, 그리고 살수를 북한의 청천강(淸川江)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사료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고구려 시대의 요수는 요서지역에 있어야 한다. 수양제가 요수에 도착한 뒤 요수를 넘어 요동성을 공략하면서, 요서(遼西) 지역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10년간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며 군(郡)과 현(縣)을 설치했다는 기록, 장검이 요서에 도착했지만 요수가 범람해 건너지 못했다는 기록, 이적이 건넌 요수의 상류가 백랑과 황암인데 오늘날의 대릉하라는 점 등 다양한 사료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정적으로 『흙정열하지』는 “대릉하가 곧 백랑수다”라고 기록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대릉하가 고구려 시대의 요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흙정열하지』는 건륭 46년(1781)에 편찬된 자료로, 청대까지도 대릉하를 요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서』 고려전에 수양제는 요수의 서쪽에 있는 武厲邐(무려라)만을 정복한 뒤 그 땅에 요동군과 통정진만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수나라 시기에 요동군의 실재적 위치가 요서지방에 자리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고구려 시대 대릉하가 요수에 해당한다면, 요하는 요수가 될 수 없다. 사료를 추적해 본 결과 고구려 시대 요하는 압록수라 불렸다. 『자치통감』과 『통전』 등 다수의 사료를 분석한 결과 고구려 시대 압록수는 평균 강폭이 당적으로 300보 곧 580여 미터의 거대한 강으로, 거센으로 가득찬 수많은 부두가 있었으며, 크고 작은 배들이 수백 리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강이었다.

남송대 성리학자 주희가 『주자어류』등에서 언급하였듯이 고구려 시대의 압록은 황하 장강과 더불어 중국의 3대강에 포함되어야 하며 서북에서 발원하여 발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었다. 또한 고구려 시대 압록강은 요동과 요서를 구분하는 강이라는 것도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압록강의 다른 이름이 혼동강이며 여진의 중심지인 말갈지역의 백산 곧 장백산에서 발원한다고 하였다. 고구려~요금 시대의 장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고지도도 확인하였다.

조선시대 홍만종도 그가 찬술한 『동국역대총목』에서 조선의 압록강과 다른 또 하나의 고대 압록강을 서술하면서 조선의 압록강은 주희가 말한 3대 강인 황하, 장강, 압록과 다른 압록강이라고 인식하였다.

고구려 시대의 요수가 대릉하, 압록강이 요하라면 고구려 평양성의 위치도 바뀌어야 한다.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성은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시대 압록수 곧 요하 동남 450리 지점에 있어야 한다. 사료 분석 결과 요녕성 요양을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성이라고 기록한 것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자치통감』, 『대명일통지』 최부의 『표해록』 등은 모두 요녕성 요양을 장수왕의 평양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살수 역시 『대명일통지』 등의 기록이 증명하듯이 압록강 동쪽 평양성 서쪽에 위치해야 하므로 압록수(요하)와 평양성(요양) 사이의 혼하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적을 통해 수나라 양제와 당태종이 왜 동서 2백 리의 진흙벌인 요택을 무리하게 넘으려 했으며, 안시성, 요동성, 비사성, 건안성 등 요하 유역과 요동반도에 전투가 집중되었는지 설명될 수 있다. 바로 요수가 대릉하, 압록수가 요하, 평양성이 요양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요양에서 현재의 압록강에 이르는 험준한 200여 킬로의 산악지역과 압록강에서 북한 평양 사이의 지명들이 왜 전쟁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지도 설명된다. 이 지역으로 군사적 이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청나라 때 형부상서를 지낸 진혜전(秦蕙田, 1702~1764)은 그의 저서 『오례통고(五禮通考)』에서, 명나라 경제치용학자 고염무(1613~1682)는 『日知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무제가 누선장군 양복을 파견해서 제나라로부터 발해를 건너 조선을 공격한 것, 위나라 명제가 여남태수 전예를 파견해서 청주의 제군을 거느리고 바닷길로 공손연을 토벌한 것, 전진의 부견이 석월을 파견해 기병 일만으로 동래에서 右逕을 나와 화룡을 습격한 것,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장량에게 명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동래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질주하여 간 것, 설만철이 갑사 3만을 거느리고 동래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압록수로 들어간 것 등, 이 모든 것은 산둥에서 바다를 건너 요동에 이르는 노선이다 (薛萬徹率甲士三萬, 自東萊渡海, 入鴨綠水, 此山東下海, 至遼東之路)’.

고조선과 고구려를 공격한 주요한 전쟁은 한반도가 아니라 모두 요동에서 일어났다는 명청대 중국 학자들의 이야기다. 설만철은 산둥에서 출발해 압록강을 건넌(渡) 것이 아니라 입구를 타고 들어갔다(入). 요하를 타고 올라가면 요하의 지류 태자하를 통해 평양성 곧 요양이 나왔기 때문이다. 장수왕의 평양성이 북한 평양이라면 지금의 압록강 입구로 들어가 거슬러 올라갈 이유가 없다. 요하를 거슬러 올라가면 요하의 지류를 통해 요양 외에도 심양, 개원, 철령 등 수많은 요하 유역의 도시와 연결된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기 전 1970~80년대 초까지도 요하에서는 수많은 배들이 운항하고 있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21세기는 자료의 디지털화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중국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 수많은 기록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그동안 잘못된 역사지리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와 수의 전쟁에 등장하는 주요한 전투가 진행된 지명들은 기록대로 요수(대릉하), 압록수

(요하), 평양성(요양), 살수(혼하) 등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깊은 수·당과 고구려 전쟁사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중국 자료: 『隋書』,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通典』, 『通志』, 『武經總要』, 『欽定熱河志』, 『大明一統志』, 『圖書編』, 『籌海圖編』, 『朱子語類』, 『朱子五經語類』, 臺灣三軍大學編, 『中國歷代戰爭史』, 軍事譯文出版社, 1983.

한국 자료: 朴趾源(『熱河日記』), 崔溥(『漂海錄』), 洪萬鍾(『東國歷代總目』)

2. 단행본 및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7세기 국제정세와 고구려·수당전쟁』, 동북아역사재단, 2023.

남익현, 「중국의 <중조변계사>를 통해 본 한중국경문제」, 『인문과학연구』 57,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8.

_____, 「사료 속의 백두산과 장백산, 그리고 압록강」,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 17,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4.

북기대, 「〈신당서〉의 가탐 도리기 재해석」, 『인문과학연구』 57,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8.06.

張士尊, 『遼河航運史與東北經濟一體化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20.12.

Abstract

A Study on the Sui-Goguryeo Wars and the Identification of Place-Names through Historical Sources

Nam, Eui-Hyeon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Sui dynasty's invasions of Goguryeo stemmed from the latter's consolidation of power in Manchuria, its refusal to participate in the China-centered regional order, and the resulting destabilization of Liaoxi. By aligning with Khitan and Mohe groups, Goguryeo expanded its northern sphere of influence while obstructing critical transportation and tributary networks that supported Sui unification. In response, the Sui court mobilized over 1.13 million soldiers—exceeding two million personnel when support units are included—mounting the largest military campaign in East Asian history. The main theater of conflict lay not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cross the Manchurian corridor linking Liaoxi and Liaodong.

This study reassesses the Sui-Goguryeo wars by foregrounding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the battlefield and reconsidering long-standing historical-geographical assumptions. Previous scholarship has often misidentified major toponyms by equating classical river names with their modern Korean Peninsula counterparts: linking the Liaoshui (遼水) to today's Liao River (Liaohe 遼河), the Amloksu (鴨綠水) to the modern Yalu River (Amnokgang 鴨綠江), the Salsu (薩水) to the Chongchon River, and Pyeongyang Fortress to present-day Pyongyang. A careful rereading of primary sources suggests alternative identifications: the Liaoshui corresponds to the Daling River, the Amloksu to the modern Liaohe, the Salsu to the Hun River, and Pyeongyang Fortress to Liaoyang in Liaoning Province. Recognizing Manchuria as the true center of the conflict highlights the need for systematic revalidation of river names, fortress locations, and key geographical markers through rigorous textual analysis and historical-geographical reconstruction.

Keywords Sui-Goguryeo Wars, Liaoxi (遼西), Liaodong (遼東), Amnok River (鴨綠江, 鴨綠水), Pyeongyangseong (Pyeongyang Fortress, 平壤城)

이 논문은 2025년 11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12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